

## 내가 걸어온 國語研究의 어제 오늘

南 廣 祐  
(仁荷大 國語教育科)

나는 오는 8월말로 停年退職을 하게 되었다. 學究生活 가운데 값진 경험담을 써달라는 요청이지만 ‘값진’은 빼고 “내가 걸어온 國語研究의 어제 오늘”을 써보려 한다.

### 古語辭典 편찬

내가 31살의 나이로 서울文理大 국어국문학과를 졸업한 것은 바로 6·25가 터지던 해 5월 12일(’50년)이요, 1·4후퇴 후 피난지 大邱에서 고어사전 편찬에 착수한 것이 그 해 가을(’51년)이었다.

一簣 方鍾鉉(국어학자, 서울文理大 교수, ’52년 작고) 선생의 「古語材料辭典」(전후집)에 실린 자료는 물론, 그 무렵에 慶北大 대학원에서 찍어낸 海印寺판 각종 언해본을 비롯해 여러 개인 藏書를 빌어 資料를 추려 카드화했다. ’56년 봄 서울로 돌아오게 되어 서울大 도서관의 一簣文庫本이나 가람 李乘岐선생의 藏書 등을 비롯한 여러 도서관이나 개인의 장서를 빌어 내 나름대로는 어지간히 정력과 시간을 쪼개 자료수집을 했다.

이렇게 해서 이 원고는 동아출판사로 넘겨가서 책으로 되어 나온 것이 1960년 9월 30일이었고, 그 해 10월 25일 한국일보사 제 1회 韓國出版文化賞(著述부문, 한국도서관협회 選定 優良圖書)을 받았다.

이 사전의 출판을 맡았던 동아출판사의 金相文사장은 이 출판이 얼마나 힘이 들었는지 몇 차례나 조판한 것을 집어 던지려 했는지 모르겠다고 슬피하고 있으며 자손들에게는 古語研究를 하지 말라고 유언을 하겠다는 弄(?)까지 한 일이 있을 정도였다.

그것은 이 사전 출판을 위해 슬한 漢字의 僻字와 고어 활자를 준비해야 했고 정확을 期하노라 10校를 보노라니, 얼마 팔리지도 않을 한 책을 위한 出力이 너무나 컸으므로 그의 苦衷이 컸을 알 만한다.

그런데, 이 사전이 완벽한 것이 아님은 그 누구보다도 나 자신이 잘 알고 있었다. 그래서 새로 생긴 자료나 前 자료문헌에서 더 뽑은 자료들을 보태고 잘못도 바로잡아 ’71년 3월에는 補訂版을 一潮閣에서 내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그것으로 만족할 수가 없어서 문교부 연구비를 3년 동안 받아 「古語大辭典」 간행을 위한 작업을 진행했고 지금도 작업을 계속중이다.

특히 諺解文獻 등에서의 漢字語의 모충과 近世語(17~19C) 문헌에서의 자료 보충에 중점을 두고 있다. 그러나, 일의 추진이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니다. 하고 싶은 일에 대한 욕심은 너무나 크고 많으며 거들어 주는 일손은 모자라기 때문이다.

그러나, 언젠가는 빛을 볼 것이라는 생각과 보

람 있는 호뜻한 마음에 신들린 사람처럼 이 일을 틈틈이 해가고 있다.

이 古語辭典 편찬의 부산물(?)로 얻어진 것이 '62년에 나온 「國語學論文集」이다. 古語辭典 편찬의 부산물이란 말을 한 것은 고어사전 편찬을 위해 자료카드를 만들다 보니 자연 이들 논문자료가 생겼기 때문에 하는 말이다. 논문자료가 충분할수록 신빙성 있는 논문을 쓸 수 있음은 물론이다.

이 논문집은 24편의 大小論文을 실은 것인데 龍△論攷·마시개研究·충곡用攷 등과 주석에 관계되는 것들이다. 松江歌辭나 高麗歌謠 등 교재로 다루어지는 古典作品의 正註를 위한 노력의 일단이 이 위엿것에 나타나 있다. 확실한 論證 자료를 가지고 종래의 잘못된 說을 수정할 수 있는 것은 분명히 보람이라 할 수 있고 즐거움이 아닐 수 없다. 한두 가지 예를 들어 본다.

1955년 6월에 나온 한글(109호→정경 호수 111호) 부록에 실린 석보상절 권 6에 나는 ‘:입·게’를 발견하고 크게 기뻐했었다. 그것은 그때까지만 해도 龍飛御天歌 第19章의 본문이 교과서에까지 “구든城을 모르샤 잠길히:입·더시·니센하나비를 하늘히 브리시니”로 되어 있었는데 실상 ‘:입·더시·니=則迷于行’는 ‘:입·더시·니’가 正綴이요 ‘迷’의 뜻에도 부합하는 것으로 이 釋譜의 ‘:입·게’가 바로 ‘迷’의 뜻이었던 것으로 이 ‘:입·게’의 출현으로 ‘:입·더시·니’의 잘못을 바로잡게 되었던 것이다.

救急簡易方(成宗20년 1489년刊)에서 처음으로 ‘마람(‘번갈아’의 뜻)’이란 副詞를 발견하고 鄭 僑亭에 나오는 “아소닐하 도람드르샤 피오쇼셔”의 ‘도람’이 ‘돌(廻)+암(名詞化接辭)’으로 보던 통설을 뒤집어 ‘도람’이 名詞 아닌 副詞로 보아 ‘(마음을) 돌려들으시어’로 주장하게 된 것도 기쁨의 하나였다.

‘피오쇼셔’도 그렇다. 종래에 ‘피오’를 ‘피오쇼셔’의 1母音 아래 1脫落形으로 보아 ‘사랑하쇼셔’로 보는 것이 通說이었다. 그러나, 나는 ‘피오쇼셔’의 ‘피오’는 ‘퍼오다(摺·摺·撐·攆·攆)’의 語幹으로 보아 ‘피다·받치다’의 뜻으로 풀어 ‘돌려들으시어 小臣을 뒷받침(支持)하쇼셔’로 본다. 文意로 보나 語意로 보아 무

리가 없는 것으로 생각한다. 더구나, 時用鄉樂譜에 보면 “피쇼셔(三城大王)”가 나오는 바, 이것이 바로 ‘사랑하쇼셔’의 뜻이 분명함에 있어서라.

松江의 思美人曲에 나타나는 “深山窮谷집 낫마티 빙마쇼셔”를 종래에 교과서에까지 “深山窮谷 집낫마티 빙마쇼셔”와 같이 끊고 ‘집낫’을 ‘정낫·대낫’으로 풀었던 잘못을 바로잡은 것도 이 고어사전 편찬의 부산물의 하나라고 해야 할 것이다.

松江작품 모두를 훑어 자료를 수집하는 가운데 그의 時調

오늘도 다 새거다 호희메오 가자스타  
네는 다비어든 네는짐 띄어주마  
훈길헐 썩따다가 누에머켜 보자스타

의 ‘네는짐’의 ‘짐’이 바로 사미인곡 ‘深山窮谷집’의 ‘짐’과 같은 것으로 ‘쑤’의 뜻임을 밝혔던 것이다.

고어사전의 편찬을 위한 漢字語 수집작업에서 언해문헌에 나타나는 순 우리말과 그 漢字對譯語를 비교해 보면 여러 가지 국어에 대한 우리의 이해 부족을 깨닫는 경우가 많다는 사실을 느끼게도 된다.

순 우리말이 있는 데도 불구하고 새로운 漢字말이 등장하여 우리말의 退化를 가져오게 한 것도 있고 아주 代替되어 버린 것도 있어 되도록이면 사라진 우리말을 되찾고 漢字語를 몰아냈으면 하는 생각들이 일부 論者들에게 있어 해방 후로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끈질기게 ‘국어정화’와 ‘국어순화’라는 이름 등으로 행동화해 왔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가은터(→가운데)·얹(→얹)·뒤·안·뵈(→뵈)”과 “中·前·後·內·外”의 쓰임새가 倅同한 것이 아니다. “重暄·輕暄”과 “므거븐(→무거운)·가비야븐(→가벼운)”도 같은 경우다.

- ①멀리 10년 앞을 내다보고……後의 뜻
- ②내 뒤에 서 있는 K君……‘뒤’를 後로 바꿔 놓을 수가 없다.
- ③내 앞을 걸어가는 R君……‘앞’을 ‘前’으로

바뀌 놓을 수가 없다.

④ 管内·內定·內諾·內外從·外科·外傷·外柔內剛에서 ‘內·外’를 ‘안·밖’으로 고칠 수도 없다.

⑤ 體重이 무거운·가벼운 사람은 있어도 體重이 ‘重한·輕한’ 사람은 없다. 다만 責任이 ‘重한·무거운’이나 ‘輕한·가벼운’은 통용된다.

북한에서 ‘溫麵’을 ‘더운 국수’로, ‘殺菌’을 ‘균죽임’으로 하자는 의견이 강하다고 한다. 그러나 ‘냉면’만은 너무 익어진 말이므로 그대로 무방하다고 한다는 것이다. 이쪽에서도 그런 생각으로 있는 이들이 있을 듯도 하다. 그런데 “溫帶·溫度·溫床·溫順·溫室·溫情·溫泉·溫厚…… 등” 술한 일상용어에서 ‘溫’이 ‘따뜻하다·따스하다’의 뜻이 들어있음을 누구나 아는 데에 굳이 ‘溫麵’의 ‘溫’만을 ‘더운’으로 고칠 것이 있겠는가. ‘殺菌’도 그렇다. 이 낱말을 ‘균죽임’으로 고치면 될 것도 같으나 “殺氣·殺伐·殺傷·殺生·殺身成仁·殺戮·殺意·殺人鬼·殺人未遂·殺蟲·殺風景·殺害”의 ‘殺’은 어떻게 할 것이며 “殺菌熱·殺菌燈·殺菌力·殺菌性·殺菌劑” 등은 무엇이라고 할 것인가. 그 한두 마디 ‘더운 국수·균죽임’이라는 말을 새로 만들어 내는 노력은 차라리 日語의 찌꺼기와 범람하는 西歐語外來語나 생경한 외국어를 국어(순 우리말이나 漢字말)로 바꾸어 보는 방향으로 한글전용론자나 國漢混用論者가 합심해서 노력해 보았으면 한다.

### 朝鮮(李朝) 漢字音研究 간행

내가 漢字音연구의 계획을 세운 것은 고어사전이 나온 뒤의 일이다. 朝鮮(李朝)시대 각종 언해문헌 등을 중심으로 漢字音 및 그 聲調를 조사하였다. 일차적으로 「東國正韻式 漢字音研究」를 펴낸 것이 '66년 4월이었고 계속 작업으로 朝鮮漢字音을 펴낸 것은 1969년 3월이었다. 이것으로 나는 1972년에 제13회 三一文化賞(學術本賞)을 받은 바 있다.

나는 이 연구를 통해 朝鮮朝 漢字音의 實態를 파악하고 國語史研究에서 새로운 연구자료를 제공하는 일을 한 것으로 생각하며 한편 오늘날 한

자말 長短이 전통성의 계승이라는 점을 확인했다고 생각한다. 오늘날 漢字音의 長短이 일제하의 국어교육 不在·일본 漢字音의 영향·해방 후의 한글전용방향의 교육으로 漢字知識의 缺如에서 오는 漢字 무식 등 여러 이유로 빚어진 漢字말 발음의 문란을 개탄하면서도 그러나 連綿히 이어져 온 전통성을 대견하게 생각하면서 하루빨리 발음 교육의 正常化를 염원하고 있는 것이다.

조선조에 들어와서 訓正創制 후에 나온 각종 언해문헌을 통해서 조사된 漢字音 변화의 實態를 보면 순 우리말의 音韻變化와 같은 현상을 대체로 보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初聲의 변화에 있어서 “△脫落(人 人>인) 口蓋音化(停 停>정>정)·激音化(板 板>판)·硬音化(氏 氏>씨)·頭音法則으로 語頭에서 ‘ㄱ·ㄴ 子音회피(柳 류>뉴>유·女 너>여)·들깨 音節 이하에서만 ‘ㄴ>ㄹ(大怒 데노>데로), ㄷ>ㄹ(次第 차례>차례>차레)·子音變異……’ 등이나 中聲의 변화에 있어서 ‘>ㅈ(子 자>자)ㅈ>ㅉ(梅 미>미)·單母音化(社 사>사)·四唇母音化(不 불>불)·口蓋母音化(則 측>척)……” 등이 모두 그렇다.

다만 순 우리말의 음운변화에 비해 한자음의 경우가 연대상 뒤져 가는 경향이 아닌가 한다. 그것은 漢字의 경우, 그 準據를 보이는 漢字 학습서(訓蒙字會·類合·千字文 등)나 字典·韻書類의 保守性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닌가 한다.

壬亂前 문헌인 六祖法寶壇經이나 訓蒙字會, 宣祖版 四書諺解·小學諺解 등을 비롯한 현실 聲調문헌에 나타난 한자음 성조는 오늘날의 한자음 장단으로 이어져 연면한 전통성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가 있다.

- ① 入聲音 ㄱ ㄹ ㅂ 받침 漢字音은 모두 짧다.  
學校 實科 合格
- ② 平聲字는 短音이다.  
家庭 歌手 干涉
- ③ 上聲字는 대체로 長音이다.  
可能 假想 感動
- ④ 去聲字는 대체로 短音이다.  
鼓舞 起立 既成
- ⑤ 들깨 音節 이하에서는 上聲字도 짧아진다.  
感動: 감·동(→: 동, 釀小 8: 26·宜小

5: 37)

道理 : 도·리 (←: 리, 釀小 8: 1·宜小 6: 12)

그러므로 오늘날의 학교교육에서 이러한 전통성 유지의 노력을 하는 것이 교육적이라고 생각한다.

오늘날 “보배(←寶貝)·진작(←斟酌)·자반(←佐飯)·전반(←剪板)” 등에서 “貝·斟·佐·板” 등의 現漢字音은 “페·침·좌·판”이지만 옛 漢字音은 “비·짐·자·반”이었음을 알 수 있고 그 古音의 유지를 보여 주는 예다.

惠慶宮 洪氏의 ‘한동록’이 恨中錄이나 ‘閑中錄’이냐는 학자들 사이에서도 양론이 있지만은 당시 한자음으로선 ‘閑’은 ‘한’, ‘恨’은 ‘훈’이므로 ‘閑中錄’이 옳은 것임을 확인해 둔다.

현대 한국 한자음과 일본 한자음과의 비교 연구도 흥미로운 과제가 될 수 있지만 조선 한자음(東國漢字音式 漢字音 포함, 특히 壬亂前 漢字音)과 일본 한자음(古今)과의 비교연구는 더욱 흥미로운 課題인 것임을 朝鮮 漢字音研究(東國正韻式 漢字音研究 포함)’를 통해 알고 있다.

### 現代國語國字의 諸問題·國語國字論集

5·16 후로 국어국자문제에 대한 여러 論難이 제기되었다. 한글전용·학교문법통일·漢字略字·한자교육폐지(한글改版 교과서 편찬) 등에 대한 것이 그것이다. 전공이 국어학이니 만큼 그대론 있을 수가 없었다.

이들 문제에 대해 내 소견을 써 모은 것이 「現代國語國字의 諸問題」란 책이다. 초판이 1970년 5월에 나왔고 改訂版이 1973년 2월에 나왔다.

그 후로 문교부에서 한글맞춤법 改定·표준말 再查定·외래어 표기법 改定 등 4개 試案작업을 진행했고 한편 중·고 漢文教育用 基礎漢字가 選定되어 공포되는가 하면 중학교 漢字教育이 부활되고 중·고 국어 교과서의 팔호 안에나마 漢字가 들어가게 되고 漢字教育이 되살아나게 되긴 했다. 그 후로 國語醇化 문제가 크게 부각되기도 했었다.

이들 문제에 대한 私見을 써 모은 것이 國語國字論集이다. 초판이 1982년 2월에 나왔고 1983

년 1월에 重版이 나왔다.

이들 두 책에 실린 내 所見은 다음과 같다.

1. 國漢混用 문제: 한글과 漢字에는 각각 長短點이 있는 바, 短을 버리고 長을 취해 混用하는 것이 현명하다. 漢字의 장점인 視覺性·造語力·縮約力을 살리되, 그 단점인 字數의 過多는 常用漢字 1,800字(姓名用·地名用 별도 고려)쯤으로 줄이고 획이 많아 쓰기 어려운 漢字(200字 이내)는 略字로 해서 그 어려움을 덜었으면 한다.

2. 漢字교육 문제: 국민학교부터 漢字교육을 할 것과 모든 교과서를 國漢混用으로 할 것(단계적인 過渡조치는 필요하다).

3. 한글맞춤법 문제(國語正音法案 '71년 7월): 우리말을 소리나는 대로 적되 表音文字(音節文字)의 본질과 表意性의 長點을 살려 語法에 맞도록 적는 것을 원칙으로 할 것.

① 받침은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 ㅈ ㅊ ㅋ ㆁ ㆁ의 15개로 줄인다.

② 지나친 表意性(形態素 밝히기)를 止揚한다.

③ 지나친 띄어쓰기를 止揚할 것.

4. 표준말 문제: 지나친 規制를 止揚하고 現實音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아름다와→아름다워, 지팡이→지팡이), 특히 ‘메·페·헤’로 된 순 우리말이 하나도 없음을 비추어 漢字音 ‘메·페·헤’를 ‘메·패·해’로 할 것 등.

5. 外來語 표기 문제: 原音主義나 英語式 발음 존중주의를 止揚하고 어디에서 어디를 거쳐 들어왔건 익어진 대로(國語化한 대로) 적자. 現實音을 존중하자는 것. 東洋人名·地名 등 고유명사는 우리 漢字音을 원칙으로(동경·풍신수진·장개석·여순) 할 것.

이 밖에도 우리말 開發이나 國語醇化 문제 등에 대한 관심을 보였고 한글전용법안 통과 당시의 國會速記錄을 실고 비판하기도 했다.

’60년대 ‘漢字音研究’ 전후를 통해 여기저기 써있던 論文들을 한데 묶어 ’75년 5월 「國語學研究」라는 이름의 論文集을 낸 바 있다. I. 近世語研究, II. 漢字의 音·訓·聲調研究, III. 國語國字研究의 세 項目으로 갈라 편집되어 있다.

## 韓國語의 發音研究〔I〕〔II〕·한국어표준 발음사전 刊行

내가 우리말의 發音에 관심을 가지고 연구하기 시작한 것은 1946년 6월부터라고 생각된다. 꾸준히 자료를 모으고 분석하고 정리하여 논문을 발표해 왔다.

'84년에 이르기까지 國語發音의 有關論文은 22편에 이른다. 이것을 두 권으로 묶어 「韓國語의 發音研究〔I〕—순 우리말과 漢字말의 標準發音을 중심으로—」와 「韓國語의 發音研究〔II〕常用 漢字 및 漢字말의 표준발음 研究—긴소리·사이된소리를 중심으로—」를 '84년에 내었다.

한편 국어발음사전의 필요성을 切感하여 발음사전 편찬을 위한 資料를 수집하기 시작한 것은 1957년부터라고 생각된다. 국어국문학회편 「국어새사전」(1958.3 발행)의 긴소리 표시를 검토하는 일을 맡은 후였다.

1973년 1월부터 「標準國語發音辭典」의 편찬을 위하여 본격적인 작업에 착수했다. 이때에 계획했던 발음사전은 순수한 발음사전이 아니라 국어사전을 겸한 발음사전이었다. 표제어를 선정하여 한글발음 표시와 뜻풀이까지 하여 辭典 편찬을 위한 원고 작성을 하고 見本組版까지도 했다. 1978년 9월의 일이다.

그러던 중, 韓國精神文化研究院의 연구비 지원을 받아, “國語發音辭典 편찬을 위한 調查研究”에 착수, 1979년 1월부터 1981년 12월까지의 3개년 계획으로 연구 추진되었다. 나를 代表研究者로, 李喆洙(현 仁荷大교수, 國語學·國語教育)·俞萬根(현 成均館大 교수, 言語學·音聲學)을 研究者로 한 것이다.

우선 순수한 發音辭典 편찬을 위하여 계획을 세우고, 다시 기초 자료를 수집하고 정리하였다. 초·중·고교 교과서에 나오는 어휘를 조사하여 적합하다고 생각되는 단어를 수집하였고 국어조사연구회의 ‘표준말 자료’(1970), ‘새로 정한 표준말’(1972), ‘표준말 제사정 시안’(1979) 등을 제검토하였으며, 여러 국어사전을 참고로 하여 표제어를 선정하였다.

한편, 設問에 의하거나 ‘발음사전을 위한 세미

나’ 개리 등으로 여러분의 意見을 모으는 데 노력하였다.

발음표시는 한글 字母나 국제 음성기호를 사용하였고 個別言語의 발음기록은 물론, 體言에 토가 添用되거나, 複合 또는 派生되는 경우와 用言이 活用될 때의 발음을 기록했다.

이 사전 편찬을 위해 百餘回の 協議會를 가졌었다. 수록 어휘는 10萬餘 단어, 1,017面으로 이 또한 '84년에 출판되었다.

## 韓國漢字音訓字典(假稱)

「東國正韻式 漢字音 研究」나 「朝鮮(李朝)漢字音 研究」를 펴낸 나는 ‘韓國에서의 漢字音聲調變遷研究’나 ‘基礎漢字的 긴소리·된소리 研究’를 해 왔는데 '80년경부터는 漢字訓쪽으로도 관심을 돌리게 되고 드디어는 ‘韓國漢字音訓字典’ 편찬의 꿈을 가지기에 이르렀다.

刻·국(六祖 7) : 의·꿀·국(訓蒙比叡上 1·東大上 2·尊經) 사길국(訓蒙東國上 2) 시국국·국홀국(類合下 37) 사길국(光千 23·石千) 사길릭(註千) 국(家禮 7: 27) 사길국(倭解下 42) 릿(三聲下 62) 릿(全玉上 9) 식일릭(字類上 5) 색일각·시각각(釋要上 10) [각] 삭일·몹시·몹을·이심홀·각색할·시각·해할·도야지발자국(新字 1: 15).

‘刻’字의 歷代音訓이 이랬었다. 東國正韻에는 ‘·국’이고 日本 漢字音으로 ‘こく[kok'u]’여서 ‘角·脚’의 東漢音이 ‘·각,’ 日漢音으로 [kak'u]임을 생각하면 흥미롭다.

위 ‘刻’字의 例와 같은 식으로 歷代 韓國漢字音(聲調 포함)·訓字典의 편찬을 마쳐 仁荷大 出版部に 넘겼는데 收錄漢字는 6,486字이며 '86년까지엔 出版이 끝났으면 한다. 계속중이던 古語大辭典의 원고 작성을 끝마쳐 古稀('90년)까지엔 刊行했으면 하는 것이고 ‘국어대사전’도 내 보고 싶은 所望이 하나 더 있다.

## 보람있고 즐거운 國語研究·國語教育

'50년에 대학을 졸업하고 '52년에 첫 대학 강단에 선 후로 30여 년의 국어 연구와 국어학 강의를 해온 지난날을 돌아보면 그저 보람 있고 즐

거운 나날이었다고 回想한다. 과거는 아름다운 것으로 記憶에 남는 법이어서 그럴까.

여러 著書나 論文, 중·고 教材를 내고 쓰고 엮는 일이나 講壇에 서는 일, 국어국문학회에서 국어正書法案이나 外來語表記法案을 마련하는 일에 힘쓰던 일, 1969년 7월 이래로 韓國語文教育 研究會의 대표이사로서 한글전용에 반대하고 漢字教育의 부활이나 強化운동에 힘쓰면서 會誌 「語文研究」를 45호까지 내는 데 애써 온 일이 走馬燈처럼 어른거린다.

물론 에로나 어려움이 없었던 것도 아니다. 그런 일은 먼 후일에 회고담을 쓸 기회가 있을지도 모른다. 어쨌든 보람 있고 즐거운 일이었다고 결론지으려 한다. 흔히 國語學研究는 흥미도 없고 딱딱하고 어려운 일로 인식하고들 있는 것이 아닌가 한다. 그러나 나는 내 경험에 비추며 결코 그런 것이 아니라고 단언한다.

나는 최근 數三年 轉成動詞語幹이 長母音化(긴소리화)하는 경향이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오던 바(:표는 긴소리).

배(腹)에 아기를 배 : 다. 신(履)을 신 : 다.  
품(懷)에 품 : 다. 품안(內)에 안 : 다.  
대(帶)를 띠 : 다. 꾀(謀)로써 꾀 : 다(誘).  
등 사실을 확인했으며, 漢字의 경우도 名詞로 쓰이는 '景致'의 '景'은 짧고, 動詞로 쓰이는 '우러러보다'의 뜻인 '景福'의 '景'은 길다. 名詞로 쓰이는 '占'은 짧고 動詞로 쓰이는 '占領'의 '占'은 길다. 名詞로 쓰이는 '怨讎'의 '怨'은 짧고, 動詞로 쓰이는 '怨望하다'의 '怨'은 길다. 등과 같은 사실의 발견은 여간 기쁜 것이 아니었다.

말씀에 있어서도 '手'字의 경우, "手法·手術·手帖·手尼" 등의 '手'는 짧은데 '手中'의 '手'는 길다. '受'字의 경우 '受賞·受諾·受侮·受理·受領' 등의 '受'는 짧은데 '受苦'의 '受'는 길다. '酒'字의 경우 '酒氣·酒量·酒家·酒興·酒는 幕' 등의 酒는 짧은데 '酒酌'의 '酒'는 길다. 그런데 '手中'의 '手'가 訓蒙字會(1527년)에 上聲, '受苦'의 '受'가 月印釋譜(1459년), 初刊杜詩諺解(1481년) 이래 여러 문헌에 上聲, '酒酌'의 '酒'가 龜譯小學(1517년) 등에는 上聲이다. 이들 上聲은 오늘날 긴소리인 것이다.

한편, '將'字의 경우, '將來·將次'의 '將'은 짧고 '將帥·將校·將兵·將星·將材'의 '將'은 긴소리다. 그런데 같은 '將帥'의 뜻으로 '將軍'의 '將'만은 짧은 것이다. 이것이 宜孟이나 宜小에는 平聲이어서 역시 짧은소리의 淵源이 4백년 이전의 文獻에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옛 문헌을 뒤적이면서 이러한 과거에 묻혔던 일을 알게 되었을 때는 즐거운 것이다. 내 것을 疏遠히 생각하는 풍조가 있다면 서운한 일이다. 우리말이 특히 日帝下, 근 40년 擧대집받아 오던 과거를 잊을 것이 아니라 日語에 오염되고 범람하는 英語 등의 영향으로 다시 명들어 우리 國語의 순수성이나 傳統性 등이 지켜져야 하는데 이 국어 守護의 主役도 國語學徒임은 물론이다.

뿐만아, 祖國統一의 앞날을 생각하면 더더욱 국어연구의 중요성이나 國語正書法·外來語 표기법·표준말·우리말 開發이나 國語醇化·國語混用정책의 확립 등 山積한 문제해결의 使命感 같은 것을 느끼게도 된다.

'국어에 대한 새로운 理解'가 국민적 국가적 次元에서 高潮되기를 기대하면서 百害無益하고 실현성도 없는 한글전용법안의 폐기가 시급히 이루어지기를 강조해 둔다.

우리의 國漢字混用·日本의 漢字一가나混用·中國의 漢字一로다字混用으로 表音 表意文字의 混用이 이루어져 韓·日·中의 漢字文化圈의 同質性이 유지될 展望인 바, 國漢混用은 극히 당연한 것임을 인식해야 한다.

先進祖國을 指向하는 이 마당에 우리는 한글專用的 迷妄에서 벗어나야 한다. 同文化圈의 中共·日本의 浮上을 보라. 漢字教育의 強化 없이는 東洋文化圈에서 韓國의 先進化는 어렵다.

우리도 국민학교에서의 漢字教育을 陽性化하고 各급 學校의 모든 教科書를 國漢混用으로 하여 教育의 效果를 高揚하고 讀書하는 국민을 만들어 知力·倫理力에 있어 日本을 앞질러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우리는 中·日과 함께 漢字文化圈의 一員으로 共榮의 길을 가는 것이 先進祖國을 志向하는 이 時點에서 賢明한 길이라고 생각한다. \*